

1 개요

금악본향 오일당 본풀이는 한림읍 금악리 오일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최지국의 아들은 정좌수 따님을 보고 반하여 보자마자 달려들었으나 힘으로 제압 당하는 굴욕을 당하였다. 하지만 정좌수 따님이 마음에 두고 있어 결국 혼인하여 금악리 본향 신이 되었고, 그 자식 일곱 오누이는 제각기 흩어져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오일한집은 육지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이다. 하루는 최지국의 아들이 마상총을 들고 사냥을 나섰다가 땔나무를 하러 나선 호근모르 정좌수 따님을 만났다. 최지국의 아들이 정좌수 따님에게 반하여 달려들어 붙잡으니 정좌수 따님이 오히려 최지국의 아들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버렸다. 정좌수 따님이 땔감을 지고 떠나려 하니 최지국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정좌수 따님은 자신에게 누님이라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다. 최지국의 아들은 할 수 없이 누님이라고 하여 풀려났다. 정좌수 따님이 집으로 들어가니 동네에서 자꾸 혼잣말이 돌았다. 정좌수 따님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는 이미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 있으니 허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루는 큰 비가 내리는데 최지국의 아들이 마상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정좌수 따님은 아버지에게 저 사람이 내 남편감이라고 일렀다. 그 뒤에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았다.

정좌수 따님은 검은오름 도신모들, 최지국의 아들은 알당밭 오일한집으로 들어섰다. 둘 사이에서 일곱 오누이가 태어났다. 이들은 모두 흩어져서 자리 잡았는데, 큰아들은 상대리로 가서 동명리 진근동 불레남동산 일뤼중저를 아내로 삼고, 둘째 아들은 명월리 하원당 축일한집으로 가서 상계왓 축일한집을 아내로 삼고, 막내아들은 명월리 남문밭당으로 가서 남문밭당 옆의 으드레중저를 아내로 삼고, 큰딸은 조수리 삼대바지 스신용궁또 축일한집으로 가고, 둘째 딸은 저지리 당모르 중허리 일뤼중저로 가고, 셋째 딸은 상명리 느지리캔툼 축일한집으로 가고, 막내딸은 금악리 객거리 마봉오지 축일한집으로 가서 좌정하였다.

3 특징

한림읍 명월리에 거주하던 문재용 심방이 전승한 자료이다. 최지국의 아들과 정좌수 따

님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과정이 흥미롭다. 여성이 완력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점이 특히 그러하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 인근 여러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 신을 ‘금악계’라고 할 수 있다.

송당본향당을 근원으로 한 송당계, 한라산 서쪽 기슭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신들의 계보인 한라산계, 예래본향당의 딸로 이루어진 예래계와 달리, 남녀가 계보에 포함되는 점이 특이하다.

4 핵심어

최지국의 아들, 정좌수 따님, 마상총, 검은오름, 도신모들, 알당밭, 상대리, 동명리, 진근동, 불레남동산, 일뿔중저, 명월리, 하원당, 축일한집, 상계왓, 남문밭당, 오드레중저, 조수리, 삼대바지, 수신용궁또, 저지리, 당모르, 상명리, 느지리캐툼, 객거리, 마봉오지

5 원전 서지사항

금악본향 오일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